

공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조물주가 세상을 창조할 때 당신이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들이 살기에도 좋도록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다.

그후 인간은 조물주가 부여해 준 능력으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연의 위계질서를 파괴했고, 이제는 생명의 존엄성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상황에까지 도달했다.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는 문자나 수치로 모든 것의 공해도·오염도를 측정하면서 아직은 위험수위가 아니라고 자족하는 요즘의 세태를 보면서 어릴 때봤던 미래 공상과학 만화가 생각난다.

산업발전으로 인한 방사능이나 공해의 문제를 미처 해결하지 못한 인류의 생존을 위한 험난한 싸움을 그린것 이었다.

식수를 사먹어야 한다는 어느 외국의 일이 이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피부 가까이 느끼면서, 공해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보고 우리 주의를 환기시켜 보도록 하자.

우·리·는 매·연·으·로 숨·쉬·다

매연 덩어리인 서울 하늘, 흰 와이셔츠, 흰 양말은 하루는 커녕 아침에 입어도 점심 때만 되면 새까맣게 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오죽하면 “매연, 먼지에 시달리는 목을 위해” 하는 약 광고가 난무하겠는가.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 제1위는 자동차 배기가스, 그 다음이 공장에서 나오는 연소가스, 빌딩이나 주택의 난방가스 등이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4에틸납 등이 들어 있다.

질소산화물은 급성 중독시엔 폐수종을 일으켜 사망까지 이르게 하며, 가벼운 두통에서 격렬한 기침, 호흡곤란에 이르기까지 만성장애를 가져 온다. 일산화탄소는 혈액소의 수소 운반능력을 저하시켜 체내 조직이

숨쉬는 것을 방해한다.

탄화수소 화합물은 대기 중에서 다른 물질과 결합,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며 이를 오래 호흡하면 골수의 조혈기능이 이상을 일으켜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의 원인이 된다. 벤조피렌이 체내에 축적되면 폐암 등 치명적인 해독을 끼치며 4에틸납은 배기가스로 배출되어 도시인의 머리카락 속엔 농촌사람의 평균 1.3~2.5배 가량 높은 양의 납이 축적돼 있으며 서울 시민은 미국인들보다 11배나 높은 납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다는 보고가 나온 바 있다.

물론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유황이 제거된 석유와 저공해 엔진부착, 가스배출 규제강화로 오염을 덜 수 있다.

도·시·는 교·통·소·음·지·옥

도시인들은 아침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심지어는 잠자고 있으면서도) 각종 소음에 시달린다. 자동차 · 공장소음, 주택가 내의 이웃 소음, 상행위로 인한 소음 등등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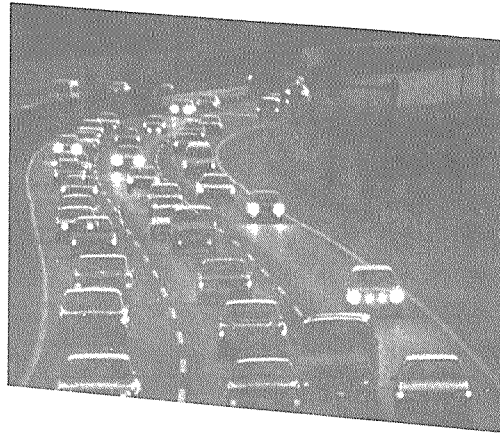
주위가 온통 소음이다. 소음 속에 묻혀사는 나머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불안할 지경이다.

환경법상 주거전용지역(주택 · 학교 · 병

원)은 40~50데시벨, 상업지역은 60~70데시벨, 공업지역은 70~75데시벨로 기준치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대도시에서의 소음은 이 환경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도심지는 가히 교통 소음 지옥이라 할 만하다. 환경청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상업지역은 기준치보다 8~64배, 부산·인천·광주 등도 8~2백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도심지역의 심한 소음은 낮시간에 활동을 많이 하는 시민들에게 소음성 영구난청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환경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도로변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소음때문에 수업하기 곤란할 정도의 지장을 받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영등포의 한 국민학교는 교문 앞으로 경부선, 호남선 국철과 전철이 지나가고 옆과 뒤에는 고가도로가 있어 수업에 지장을 받을 뿐 아니라 학생들은 신경질, 두통, 피로감 등의 고통을 호소한다고 한다.



교통 소음을 줄이는 길은 자동차의 도심 진입 제한, 속도 제한, 경음기 사용의 철저한 단속과 철로·도로변의 주택가에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강남의 일부 지역등 주로 중산층이 모여사는 곳 정도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을 뿐 많은 사람들이 소음에 방치되어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땅·과·사·람·을·죽·이·는·독·농·약

우리는 종종 농약으로 농민이 죽었다는 보도를 접하긴 하면서도 이것이 우리 자신의 문제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농약의 과다사용은 이미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체까지 위협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우리나라에서 농약을 사용하게 된 것은 일제시대부터 대동아전쟁 때 일제의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김해·호

남평양 등에 암모니아 비료를 뿌리기 시작했다. 비료를 쓰다보니 토양이 산성화되고 지력이 감퇴하자 석회를 뿌려 일시적으로 소출만 빼먹기 위한 농사방법을 실시한 것이다. 이런 식의 농사방법이 30여년 계속되자 농약을 뿌리는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농약은 땅과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고 만 것이다.

농약의 직접적인 피해는 농민에게 미치는데, 노민들 중 87% 이상이 농약을 뿌리면서 두통, 복통, 현기증, 구토 등의 중독 증상을 경험했다고 한다. 또 요즈음엔 신종 비닐하우스병이 늘어나고 있다.

간접적인 피해는 도시민의 건강과 생태계 파괴이다. UN이 정한 유해농약 중 27종이 국내 11개 농약회사에서 제조·판매되고 있는데 이 중 7종의 농약이 채소나 과일에서 검출되었다. 특히 독성이 강한 파라티온은 과일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이에

서도 검출되었으며 펜시온도 모든 작물에 구분없이 쓰여지고 있다. 이같이 농약에 절은 야채나 과일을 먹기 때문에 산모의 젖에서조차 농약이 검출되는 등 과일은 이제 껍질째 절대 먹어서는 안되게 되었다.

자연 생태계의 파괴 또한 심각하다. 이젠 해충의 천적이 감멸되어 결과적으로 해충이 번식하게 되며 전에 없었던 새로운 해충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농약은 공기 중에 광범위하게 퍼져 우물이나 가축먹이, 발작물 심지어는 강으로 흘러들어 물고기가 기형화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선 당국은 각국에서 수입, 수출 판매를 금지시킨 농약의 국내 판매를 즉각 금지시키고 농약 용기의 안내서를 한글로 쉽게 표기하며,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시급히 마련하고 농약에 의존하는 농업정책에서 유기농업구조로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

토·양·파·괴 식·수·오·염·의

· 주·범 산·성·비

예전엔 우산없이 비를 맞는 일이 하나의 여유였지만 요즈음엔 그 빗물이 산성비, 쉬운 말로 식초물이라니 환경공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산성비의 원인은 대기오염이다. 공장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 와 질소산화물이 공중에 떠 있다가 대기중의 습기와 작용하여 황산과 질산으로 변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산화물질이 빗물 속에 용해되어 비가 내리는 것이다.

서울에 내리는 산성비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서울시 지역 중 63% 이상이 산성강우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하 PH 3.0이하로 나타난 적도 있다. 도심지나 공장밀집지대의 그 정도는 더 심하며 서울뿐 아니라 부산 · 대구 · 울산 등 영남권 대도시 지역이 강한 산성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연구원 조사).

그렇다면 산성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선 토양이 산성화되면 토양의 영양소, 칼륨 · 마그네슘 · 칼슘이 유실되어 자연적인 해독능력을 잃게 된다. 식물성장의 토대역할을 하는 토양의 순수기능이 파괴되는 것이다. 또 산성비는 수중 생태계를 변화시켜 물고기를 죽이거나 산란을 못하게

하는데, 한 보고서에 의하면 PH 5.2에서 수컷의 등이 굽고 머리도 작게 되었으며 PH 4.5에서는 거의 모든 물고기가 기형화되고 알은 부화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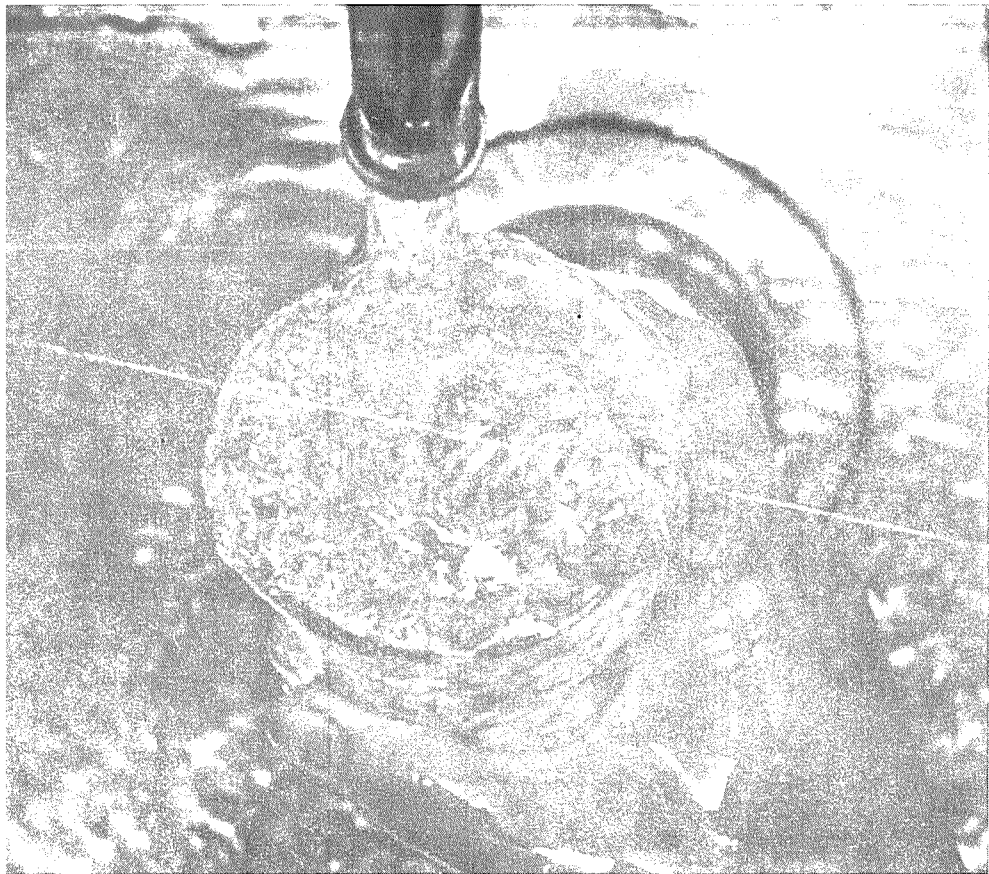
산성비로 토양이나 수도관에서 녹아나온 금속에 의해 식수가 오염되는데 이러한 경로로 인체에 들어온 금속은, 예컨대 알루미늄이 혈중에 증가하면 중추신경 마비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모든 공해가 다 그렇듯이 산성비의 피해도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 그러므로 공해에 대처하는 길은 생존권 보장의 차원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발·암·물·질·과 함·께 마·시·는 · 수·도·물

요즘들어 생수나 정수기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수도물에 녹물과 흙물이 섞이고 악취를 풍기며, 정수기 필터는 며칠만 지나도 새까만 찌꺼지도 막혀 버린다. ‘그래도 여태껏 마시고 살았는데 뭘새삼스럽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수도물과 함께 뭘 먹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수도물을 그냥 마시면 역한 냄새가 난다. 바로 원수(源水)를 소독할 때 쓰는 염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강물이 자꾸 오염되면서 대장균을 소독하기 위해 쓰는 염소 사용량도 해마다 증가하는데, 염소와 함께 쓰는 후민산, 이 두 물질이 화학반응을 하여 우리 몸에 해로운 트리하로메탄과 클로로포름이라는 발암물질을 낳는다. 우리나라 암



사망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사실도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배수장과 수도꼭지를 연결하는 송수관이 낡았거나 연결 고리가 느슨한 경우도 있고 빌딩이나 아파트의 저수탱크가 더럽거나 하여 또 오염이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원수 자체의 오염이다. 서울은 팔당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도시에 하수 처리장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산업폐수와 가정 하수가 마구 흘러들어 오염이 심해지고 있다.

수도물 오염은 개인적으로 끊이거나 정수기로 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중금속은 끓여도 없어지지 않으며, 정수기는 장시간 사용하면 오히려 세균의 온상이 되기 쉽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면 아침에 수도물을 틀 때 하얗거나 붉은 물이 섞여 나오는지, 물을 하루쯤 받아 두고 보면 이 물질이나 양금이 가라앉는지를 가정에서 관찰·기록해 보는 일부터 시작해 보자. 그리고 그 결과를 며칠, 몇 주일 등으로 정리해 반상회에서, 부녀 모임이나 교회·성당에서 발표하고 시민들끼리 모여 대책을 토론해 보자.

약·에 사·람·이 먹·히·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연간 2만8천5백원 어치의 약을 먹고 있다. 입사에 시달리는 학생들은 잠을 쫓는 각성제를, 직장인 노동자들은 이른 아침이면 피로회복제 · 드링크제를 입에 털어넣고 있다.

마치 식품처럼 먹고 있는 이 약품은 그러나 그 자체가 화학물질로 몸 속에서 화학작용을 일으켜 치료하는 것. 때문에 남용되거나 오용된 약은 인체에 치명상을 안겨줄 수 있다. 그 예로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임신 중의 약물 복용. 기형아 출산이 느는 것은 대개 극심한 환경오염과 임신 중의 약물 남용이다.

70여종이나 되는 항생제는 장기간 복용

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지용성 비타민의 부작용으로, 비타민A는 두통 · 현기증 · 구토 · 탈모, 비타민D는 뼈와 연조직에 석회를 쌓이게 하고 비타민 K는 황달을 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소비량을 보이는 드링크제는 상습 복용하면 그 주성분인 카페인 등으로 습관성이 되어 소화기 장애, 식욕부진, 빈혈, 현기증을 일으켜 더욱 약물 복용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이러한 약품의 남용은 선진 다국적 기업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입되는 약품- 자국내에선 이미 위험성이 증명돼 금지된 약품까지-이 아무런 규제없이 판매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엄청난 광고 공세를 하는 데

우리는 1인당 연간 2만8천5백원어치의

약을 먹고 있다!!!

하면 병균에 내성이 생겨 더욱 강한 약을 찾게 되고 그러니 부작용도 더욱 많아진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제도 마찬가지. 정상적인 인체는 필요한 영양분을 체내에서 만들어 쓰고 불필요한 것은 배출하게 되는데, 영양제로 과잉된 지용성 비타민은 녹지않고 체내에 축적돼 오

그 원인이 있다. 소비자들은 광고를 믿고 의사의 처방도 없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 판매금지된 약은 팔지 못하게 하는 행정당국의 규제, 약품의 과대선전 금지 등 의약품 공급 수요의 질서가 먼저 바로잡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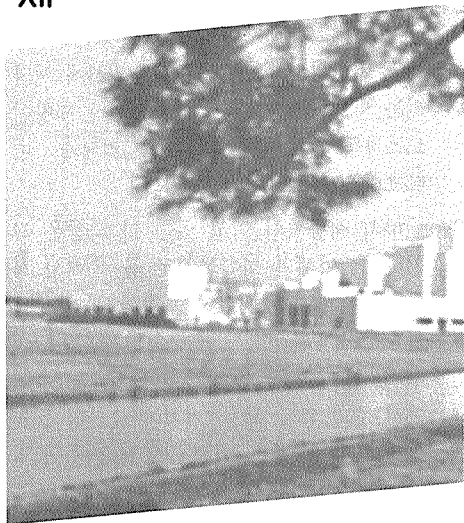
인·체·에·절·대·유·해·한

· 합·성·세·제

요즈음 비누보다 훨씬 많이 쓰이는 합성세제는 일반적으로 비누보다 세탁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 이 두가지의 세척도를 비교한 결과 수도물에서는 합성세제가 50~60%의 때를 빼는데 비해 비누는 63%로 더 높게 나타나 과대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큰 효용성을 오인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합성세제는 양모의 경우 5번 헹구도 1.6%, 면은 0.2%가 남아 있으며 그릇은 4번 이상 헹구야 합성세제가 검출되지 않음이 드러났다. 야채나 과일에 붙어있는 기생충 알을 수도물에 그냥 씻는 것도 합성세제로 씻는 것에 큰 차이가 없음도 밝혀진 바 있다. (서울대 가정대, 국립환경연구소, 연대 의대 실험)

이렇게 제대로 씻겨지지 않은 채 야채나 과일, 그릇을 통해 합성세제가 입으로 들어 오거나, 손이나 피부에 흡수되어 세제 거품의 미립자가 폐속에까지 들어가게 된다. 인체 내에 들어 온 합성세제로 인해 △혈액 속에 칼슘이 저하되어 산성화되고 이로인해 쉽게 피로해지며 △간장 활동이 저하되어 안색이 검게 되거나 기미가 낀다 △다른 화학물질(농약, 식품 첨가물)과 함께 들어가면 화학물질의 독성이 강화되는 등의 악영향이 나타난다.



△특히 합성세제를 많이 사용하면 주부는 습진에 걸릴 비율이 매우 높고 △옷에 남아있는 합성세제의 계면활성제는 피부장애(피부병, 염증)를 일으키며 아기의 옷이나 기저귀를 합성세제로 세탁하면 습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삼푸는 머리카락을 가늘게 하고 탈색시키며 탈모현상을 일으킨다.

또 강이나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합성세제인 만큼 가장 좋은 방법은 합성세제를 쓰지 않는 것이다. 기업은 인산염이 들어 있지 않은 무인세제를 개발하고 합성세제의 부작용을 제품에 표시하는 등 행정적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식·품·첨·가·물 암·유·발

우리가 먹는 식품의 70%를 차지하는 즉석 가공식품, 대량 생산되는 이들 가공식품에는 예외없이 식품첨가물이 들어간다. 식품첨가물은 대개 석유를 원료로 해 만드는 화학물질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3백 63가지가 사용된다.

대표적인 가공식품인 햄이나 소시지에는 발색제 · 방부제 · 착색제 등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 있다. 발색제는 색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 넣는데, 아질산나트륨이 가장 많이 쓰인다. 이 아질산나트륨은 고기의 단백질과 결합, 니트로조아민이란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발암물질이라는 것. 이는 암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빈혈, 구토, 호흡기능 악화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방부제는 세균류의 성장을 억제 · 방지해 식품의 보존기간을 늘리는 화학물질로서 실제로 장기간 섭취하면 부작용을 일으킨다.

방부제로는 소르빈산 칼슘, 프로피온산 나트륨, 살리실산 등이 쓰이는데 이 물질들은 암을 유발하며 중추신경 마비나 출혈성 위염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우리나라 6개 식품 회사의 모든 상품에는 소르빈산이 들어 있음이 조사 결과 나타났다.

착색제로 쓰이는 타르색소는 석탄에서 뽑아낸 것으로 3천종 이상이 합성되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체중 1kg당 1.5mg 이하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처럼 햄 · 소시지 등에 갖가지 화학물질을 넣어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까닭은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피하는 기업의 이윤 추구 목적에서 비롯된 것. 그러므로 가공식품에는 필히 첨가물 종류와 사용량, 그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가 게재되어야 한다. '미량이니까, 허용량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등한시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절·대 안·전·하·지 않·은

· 각·종 화·학·조·미·료

음식 맛이 손끝에서 나온다는 말은 이제 옛말. 오늘날은 화학조미료가 빠지면 뭔가

이상할 정도로 우리 입맛은 화학조 미료에 길들여진 듯하다.

우리나라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조미료는 미원 · 미풍 등 기존의 화학 조미료와 기존의 화학조미료(MSG)에다 5± 이노신산나트륨과 5± 구이닐산나트륨을 더 첨가한 핵산 조미료류, 맛나, 다시다 등 복합조미료 등으로 이 모두가 화학조미료인 것이다.

화학조미료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지난 68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는데 몇몇 지적 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중국 음식점 증후군'이라 불리는 것으로 온 몸이 마비되고 갑자기 심장이

있다. 또 화학조미료의 주원료인 글루타민산은 250~300℃로 가열하면 발암물질로 변한다.

화학조미료는 이처럼 전혀 영양에는 상관없이 그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소비자기구는 매년 10월 16일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로 제정했을 정도다. 우리의 입맛이 화학조미료에 길들여져 있어 전혀 안 먹기에 무리가 있다면 이렇게 날을 정해 안 먹는 습관을 익히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나아가 우리 나라에서의



뛰고 노곤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한끼에 3~10g 섭취할 때 근육마비나 두통 등 증상이 일어나며 심한 경우 중풍이나 급성 관절염이 유발되기 쉽다.

특히 1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뇌세포 손상, 기관지 천식 등의 치명적인 장애가 우려된다고 한다. 따라서 미 · 영국 등에서는 모든 유아식품에 화학조미료 첨가를 금지하고

안 먹는 날, 또는 각 가정별로 안 먹는 날을 정해 실천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

이같은 개인적 실천 외에도 화학조미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와 유아 · 어린이 · 임산부 등의 식품에는 그 사용이 절대 금지돼야 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되어야 한다.

만·성·중·독 위·험·있는

· 즉·석·가·공·식·품

즉석 가공 식품은 이제 우리가 먹는 식품의 70%를 차지하게 될만큼 식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렇게 식생활 문화가 변하게 된 것은 바쁜 생활에서 나온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서라기 보단 대량생산된 이들 식품을 팔기위한 기업의 광고 공세에 자기도 모르는 새 동화된 면이 더 크다.

기업들은 대량 생산되는 즉석 가공식품의 대량 판매를 위해, 유통기간을 좀 더 늘리기 위해 각종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고 있다. 방부제, 발색제, 산화방지제, 화학조미료, 인공감미료, 표백, 살균제, 유화제, 산미료 등 무려 363가지의 첨가물이 라면, 된장, 고추장, 단무지, 젓갈류, 마가린, 식용유, 유산균 음료, 간장 등 우리가 많이 먹는 대부분의 즉석 가공식품에 들어 있다.

특히 라면은 최근 천연 토코페롤을 사용한다곤 하나 여전히 산화방지제 BHA와 BHT가 쓰이는데 산화방지제는 기름에 튀긴 식품에 주로 쓰인다. 특히 BHA는 1982년에 발암물질임이 증명된 바 있다. 우리나라 사람의 연간 라면 소비량은 1인당 80개 정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천연 토코페롤이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계속 이를 사용하고 있고 라면 스프는 화학조미료 덩어리인 것이다.

어쨌든 이미 가공식품은 엄청나게 늘어



나고 있고 우리가 평생 가공식품을 먹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식품을 통해 소량씩 장기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첨가물에 의한 만성 중독은 심각한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 이 식품첨가물이 암의 원인이 되는데 발암물질은 미량일지라도 발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허용량이나 안전량을 정하기 어렵고 발암물질이 몸 안에 없어진 후에도 그 작용은 남게 된다. 여성의 경우엔 임신 중 태반을 통해 다음 세대까지 발암물질이 이전되기까지 한다.

이렇게 볼 때 식품첨가물은 소비자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일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데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성·50·%·가 화·장·품

· 부·작·용 · 경·험

우리나라 여성들의 화장품 사용량은 세계 1위라고 한다. 시중에 수많은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고 부작용을 경험한 여성들이 50%나 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 어느 화장품에도 성분과 부작용이 표시돼 있지 않다.

국내에서 화장품에 첨가되는 화학물질은 5천여 가지나 된다.

그중 지방성분은 크림이나 로션, 립스틱, 파운데이션 등 거의 모든 화장품에 첨가된다. 천연지방 중 라노틴은 접촉성 피부염과 알레르기 피부염을 일으킨다. 석유화학물질인 파라핀도 화장품에 많이 쓰이는데 파라핀은 피부를 자극하기 때문에 습진이 생기고 발암의 위험이 있다.

화장품의 주원료인 물과 기름을 섞어 크림상태로 만드는 유화제로 화장품의 5~8% 함유되어 있는 계면활성제는 피부에서 지방을 빼앗아 얼굴을 거칠게 하거나 습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목속에 들어가 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습윤제인 글리세린은 고농도에서는 점막에 자극을 주게 된다.

립스틱을 비롯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타르색소는 대부분 발암성이며, 안료의 불순물에는 수은, 납, 크롬 같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얼굴의 부작용뿐 아니라 인체에 매우 위험하다. 또 향료는 4천여종이 쓰이는데 이

역시 알레르기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 외에도 방부제, 산화방지제도 주원료 중 하나다.

이같은 부작용 외에도 엄청난 폭리, 허위·과장·과대 광고에 의한 잘못된 선택 등 광고와 유통과정에서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화장품의 성분과 부작용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의 개정, 허위·과장 광고의 엄격한 규제△제조일자 및 유통기간 명기△가격의 적절한 인하 등이 요구되며 소비자들은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전문의사의 진찰을 받아 원인물질을 규명하고 화장품 회사에 시정조치와 적절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피부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적은 양, 적은 종류를 사용하며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을 높이고 화장한 시간을 짧게 하며 잘 씻어내고 △피부자극 등 부작용이 느껴지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하라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